

UHD S3D Short film

The SHOOT

(부제 : 엔딩크레딧)

kkwakPD

20141005

#. 역광 속 총을 든 사내

. (역광 / 실루엣 / POV Shot)

화면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내

역광 때문이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그가 힘에 붙인 듯

자세를 고쳐 잡을 때마다

누군가를 향해 겨누어진 총구의 끝이 춤을 추고 있다

총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암전)

광

암전 속 총소리 잔향에 타이틀 자막

"계절을 잊은 매미 소리

목덜미에 닿은 건조한 햇살

다시 두통이다

어지러움 때문일까?"

총구 끝이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다

총구 끝에 잠시 망설임이 묻어난다

이내, 결심을 하고 방아쇠를 당긴다.

암전 속에 총소리만 남는다

#. 즐거운 비명을 토해내는 놀이공원

놀이공원 타임랩스 전경 씬(8K 촬영 후 Zoom in-out)

(T/S 필터효과)동화 같은 화면 비주얼

각종 놀이기구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소리가

놀이기구의 동선을 따라 들려온다(fade in-out)

아아악~

아아악~

<http://www.youtube.com/watch?v=BHjJV2LwkzA>

놀이공원 사운드(배경음악+엔비언스+폴리사운드등)로

톤이 전혀 다른 다음씬과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 (촬영 현장) 섹시한 뒷태 여배우 등장

배경으로 멀리 놀이공원 기구가 보이고

즐거운 비명소리도 이따금씩 들려온다

놀이공원 한 칸에 촬영준비로 한창 바쁜 영화(혹은, 드라마)현장

뒷태가 섹시한 여배우의 뒤를 쫓아가는 카메라

(마치, 이야기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듯한 one take 구성)

분주한 스태프들 사이를 지나 멈추어 서면

누군가의 손이 화면에 들어와 그녀의 재킷을 가져가면 드러나는 어깨선

의자에 앉는 여배우. 담배 케이스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고개를 돌리면

누군가의 손이 들어와 담배에 불을 붙여준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고 있는 여배우의 정면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빨고 난 후 카메라를 향해

내뿜는 여배우. 그녀의 빨간 입술이 연기 속에 점점 희미해진다

담배연기로 하얗게 뒤덮히는 화면

(스모그 fade in & out)

영화촬영장은 1997년 당시로 세팅

카메라는 ARRI FILM CAM, 조명기등 촬영장비 역시 최대한 클래식

<http://www.youtube.com/watch?v=mRC3yXZ2xlQ>

#. Drama속의 남녀배우

<http://www.youtube.com/watch?v=JV1436VsnZY>

(B/W 화면처리, 영화 씬 시티)

남자배우 얼굴에 뿌려지는 상대 여배우의 담배연기로 자연스럽게 앞 씬과 연결

남자배우 : 담배를 끊는 게 어때? 키스할 때마다 그 냄새가 좀 거슬리는데..

여자배우 : (담배 케이스를 열어보며)아직 5개비가 남아있는데 이걸 다

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만나고 있다면 금연을 한번 고려해 볼께~

남자배우 :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마! 담배를 제외하곤 당신은 내게 완벽해

여자배우: (피식 웃으며)사내들이란..ㅋ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핑계를 찾겠지

(희롱하듯 남자의 몸을 더듬는듯한 자세)

내게 사내는 이 담배와 똑~같아

모양도...크기도...(남자의 귀에 대고)심지어 맛도...

B안 대사

내게 남자는 이 담배개비와 같은걸..

(담배를 빨면 타 들어가는 담배불 C.U)

불같이 떠오르다가

연기가 된 다음

결국 재가 되어 버려지게 되지~ 쿵

(공초를 버리고 새 담배개비를 꺼내어 드는 여배우)

그리고 내 앞에 새로운 남자가..

#. 봄맨. 첫번째 죽음

남,녀 배우의 숨막히는 대사가 오고 가는 가운데

두 배우 사이로 갑자기 등장하는 봄 마이크

(화면 톤이 전환 모노톤->컬러풀)

이때,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다

컷!!

화면 빠지면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일순간 카메라를 향해 무덤덤한 얼굴로 쳐다본다.

마치, 정지되어 있는 그림처럼 모두들 서있는 가운데

그들중 누군가 한쪽으로 비켜서면 그 뒤에 겁에 질려 있는

봄마이크를 든 오디오기사(봄맨)의 모습이 보인다.

갑자기 **쿵** 총소리와 함께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봄맨

배우와 스태프 무덤덤하게 쓰러진 봄맨을 바라본다. 감독이 의자에 앉아 총을 들고 있다

권총의 총구에서는 방금 전 화약의 잔향이 피어 오르고 있다

총을 거두는 감독의 앞으로 메가폰을 들고 현장을 정리하는 조감독이 등장

무표정한 표정의 스태프와 배우들 정지되어 있다가 다시 아무일 없다는 듯

다시 각자 일을 한다. 무덤덤하게 봄맨의 시체를 치우는 다른 스태프들

들것에 실려 이동하는 시체위로 자막도 함께 무빙

Audio man **james lee**

스태프중 누군가(봄맨 어시스트? 아직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말자!)는

봄맨의 헤드셋과 마이크를 별다른 동요 없이 자연스럽게 넘겨받는다

Ready action

또다시 진행되는 촬영

#. 스타일리스트. 두번째 죽음

여자배우 : (담배를 빨면 타 들어가는 담배 C.U)

불같이 떠오르다가

연기가 되고

재가 되어서는 결국 버려지게 되지..쿵

(꽂초를 버리고 새 담배개비를 꺼내어 드는 여배우)

그리고 내 앞에 새로운 남자가...

이때 여배우를 껴안고 키스를 하는 남자배우

격정적으로 키스하는 남녀배우. 카메라가 서서히 틸 다운하면

색깔이 제 각각인 구두(빨/파)를 신고 있는 여배우

또다시 들리는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소리

컷!!!

스태프들 사이로 색깔이 제 각각인 구두(빨/파)를

들고 겁에 질려 있는 스타일리스트

분노에 찬 감독이 고개를 좌우로 흔든 다음

평정심을 찾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나서

총구를 겨누고 거리낌없이 방아쇠를 당긴다

총에 맞아 죽는 스타일리스트(페이크 스텐트 씀)

스태프들이 시체를 치우려는데 스타일리스트의 어시스턴트로 보이는

친구가 들고 있던 옷가지를 집어 던지고 죽은 스타일리스트의

안경을 자신이 쓰고 난 다음 여배우의 신발을 바꿔준다.

움겨지는 스타일리스트의 시체위로 자막

Stylist nu ri lee

#. D.O.P(촬영감독). 세번째 죽음

조감독의 사인에 의해 다시 진행되는 촬영

그런데 이때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

당황한 촬영감독이 서둘러 휴대폰을 끄고

고개를 드는 순간

쿵

뒤로 넘어가는 촬영감독 사이로 총을 들고 서있는 감독

그리고는 머리를 쥐어짜며 광분한다

촬영조수가 촬영감독대신 카메라를 잡는다

아무일 없다는 듯이 다시 진행되는 촬영

카메라 감독 주검위로 자막

Director of photograph **jun hong kim**

#7. 주연 여배우. 네번째 죽음

거듭되는 N.G로 여러 번 담배를 핀 여배우가
대사도중 목인 갈라진 듯한 쉼 목소리를 내게 되는 실수를 한다
당황한 여배우가 기절한 척을 해보지만
가차없이 싸 죽이는 감독(블랙코미디_극 전체 톤앤무드 연관성 고려)
조연으로 있던 여자가 앞으로 나와
입고 있던 자켓을 벗자 여배우와 똑같은 옷을 이미 입고 있다
죽은 여배우의 손에 꼭 쥐어진 담배 케이스 소품을 빼앗는다
꽉 움켜쥔 담배 케이스가 잘빠지지 않는다
감독의 광기는 점점 극을 향해 치달는다
여배우의 주검위로 뜨는 자막

Leading actress **ji hyun jun**

#. 주연남자배우. 다섯번째 죽음

여자배우와 동일한 구성의 대사 실수

남자 배우를 싸죽이고 나서 감독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한쪽에서 가글중인 남자 조연배우

남자배우 주검위로 자막

Leading actor **byung hun lee**

테스트 촬영 이후 [#. 주연남자배우. 다섯번째 죽음]씬 추가 여부 결정

아울러, 최초 오럴섹스씬으로 설계되었던 인트로의 추가 가능성 여부도 함께 점검

#. 몽타주신

총을 쏘대는 감독과 총에 맞아 죽어가는 배우와 스태프 교차

극을 향해 치달는 감독의 광기와

죽음에 직면한 스태프의 두려움과 공포

혼자 혹은 여럿의 주검들

그리고 그들 머리위로 뜨는 자막들

놀이공원 놀이기구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와

살육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sound)

회전목마와 각종 놀이동산 (캐릭터)오브제 교차와 병치_미장센

(촬영조명기기, 촬영장비?)

<http://www.youtube.com/watch?v=nn4KQ5MEuN0>

<http://www.youtube.com/watch?v=2mwu5Low7Zc>

외국모델이 3명(스태프)정도 나오면 어떨까?

배경음악은 바로크?

시계태엽오렌지/2001오딧세이/헨델의 사라방드..아직 잘 모르겠다

#. 한때 조연이었던 현재, 주연여배우의 죽음

살육의 몽타주씬이 지나고 나자

조연에서 주연이 된 여자배우와 조감독만이 주검들 사이에 서있다

감독은 얼굴에 툴 피를 닦아내며 살아남은 여배우와 조감독을 향해

총구를 휘저으며 계속해서 촬영을 종용한다

겁에 질린 여배우는 대사 중간중간 감독의 눈치를 살피고

죽어간 스태프들의 짐(역할)을 떠안은 조감독 역시

감독의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든 촬영을 진행해보려 하지만 쉽지가 않다

여배우가 갑자기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그런 여배우를 쏘는 감독. 하지만 빗맞아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여배우

감독 의자에서 서서히 일어나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녀에게 다가가

여러 발의 총알을 발사해 그녀를 죽인다.

역시 여배우의 주검위로 뜨는 자막

Leading actress **mi hyun lee**

여배우가 죽은걸 확인한 조감독은

다음은 자신의 차례임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치다

실수로 넘어져서 메가폰의 싸이렌 소리를 작동시키게 되고

애~애~앵

서둘러 배터리를 제거하고 고개를 들자

조감독의 머리에 겨누어진 총구의 끝

#. 감독의 자살(intro반복)

화면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내

역광 때문이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그가 힘에 붙인 듯

자세를 고쳐 잡을 때마다

누군가를 향해 겨누어진 총구의 끝이 춤을 추고 있다

총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철컹철컹

하지만, 총알이 없다

절뚝절뚝 다리를 저으며 테이블로 걸어가

서둘러 탄창을 갈아 끼고 다시 조감독을 향해 겨누어보지만

사라지고 없다. 카메라가 감독의 시선으로 녀석을 찾는다. 멀리 뛰어나는 놈이 보인다

총을 겨누다 (눈에 들어간 피를 닦다) 이내 포기하고 의자에 주저앉는 감독

그리고는 읊조리기 시작하다가 점차 큰소리로

레디액션~레디액션~레디액션~어언

공허한 감독의 절규만이 주검들 사이로 울려 퍼진다

하늘을 향해 저주하듯 욕을 퍼붓는 감독

그러더니 갑자기 총을 입에 물고

쿵!

(나무에서 날아오르는 새떼)

디렉터스 체어에 앉아 고꾸라진 감독 풀샷

촬영장 전경 풀샷으로 감독 머리위로 서서히 뜨는 자막

Director **JI KYUNG KIM**

#. 라이플을 쏜 제작자

Director's chair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죽어있는 감독

그 화면 위로 조준경의 프레임이 디졸브된다

(땅 바닥에 천천히 떨어지는 탄피)

선글라스를 쓰고 차 안에서

라이플을 겨누고 있는 제작자

감독은 자살한 게 아니라 제작자에 의해

저격 당한 것이었다

"차 안에서 진동하는 통닭냄새 때문에

조준경 안의 녀석을 자꾸 놓친다"

라이플을 거둔 다음 창문을 닫고

백미러로 잠시 헤어 스타일을 정리하는 제작자

그리고는 시동을 켜고 오디오 볼륨을 높인다

핸들을 잡는 제작자의 가죽장갑 손

#. 엔딩크레딧

다시, 맨 처음 놀이동산 전경 샷

음악소리를 배경으로 미끄러지듯

살육의 현장을 떠나는 제작자의 검은 세단

인트로의 T/S필터효과+타임랩스 기법의

동화 같은 화면의 놀이동산 전경

이 화면위로 엔딩 크레딧이 스크롤된다

#. 제작자와 살아남은 조감독

엔딩크레딧이 다 끝나갈 즈음,

제작자의 검은색 세단을 가로막는 이가 있다.

조금 전 운 좋게 살아남은 그 조감독이

거친 호흡을 몰아 쉬며 서있다

차 안의 제작자와 조감독 사이에 잠깐의 긴장감이 흐르고

제작자가 가죽장갑 손가락으로 핸들을 툭툭..두들기다 멈추면

자동으로 조수석 문이 열린다

차에 뛰어 올라타는 조감독

거친 호흡을 몰아 쉬며

경직된 자세로 앞을 보고 앉아있는 조감독에게

제작자가 권총과 시나리오를 건넨다

(암전)

다시 음악이 시작되며

좀 전 엔딩크레딧이

마저 올라간다

The END

시나리오&감독	곽동철 010-3606-2911 kwakpd@empas.com
감독	임재경 010-9012-7030 0228star@hanmail.net
프로듀서	조희준 010-2548-2188 martinjcho@gmail.com
프로듀서	전봉욱 010-9351-2529 jeunbu@naver.com
조감독	김종찬 010-8795-1512 jongchan_85@hanmail.net